불교 부적, 민중 염원 담아낸 문화유산



불교 부적의 연구
정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
부적 원류부터 의미들 조명
일제강점기에 기형적 변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일신라시대 범자 수구다라니. 민중의 염원이 담긴 부적이기도 했다.

부적. 액운을 쫓고 복을 가져준다고 믿는 글씨·그림·기호 등을 그린 종이를 의미한다. 지금도 불교용품점에 가면 다양한 액운을 막아준다는 경면주사 부적들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한다. "부적은 미신이고 불교의 정법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인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은 최근 출간한 저서 〈불교 부적의 연구〉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각 스님은 돈황 자료 및 대장경에 실린 부적을 점검하고 한국불교 의식집을 검토하던 중, 기존의 연구에 많은 자료가 누락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부적과 근현대에 사용된 부적에 관한 연구가 전무함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불교 부적의 연원이 되는 〈오명론(五明論)〉의 의미와 중국 전래의 고찰에서부터 고려, 조선 나아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공간 속의 불교 부적 연구를 시도한다.

특히 저자는 고려시대 간행 다라니에 실린 부적을 연구하던 중, 고려 때 사용된 부적의 동일한 형태가 돈황 자료에서 발견됨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도 그 탐구의 여정을 그대로 좇는다.

책의 여정은 '둔황'에서 시작된다. 앞서 이야기한 〈오명론〉의 의미와 중국 전래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둔황 문서 중 부적이 실린 12종의 사본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구성 차이와 사본 간 부적의 형태 및 내용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대장경'으로 향한다. 정각 스님은 〈대정신수대장경〉과 도상부(圖像部) 중 불교 부적이 실린 총 18종의 문헌을 대상으로 각 부적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한다.

세 번째 여정은 '한반도'다. 먼저 고려시대에 간행된 부적을 정리하고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스님은 고려시대에 사용된 불교 부적은 돈황 사본에 실린 부적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조선시대 간행 부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도교 문헌인 〈태상비법진택영부〉 〈옥추경〉 등 도교 부적 유입 양상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불교 부적이 다양화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그려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 부적이 기형화된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진단하기도 한다.

이 책은 '부적'이라는 또 하나의 불교문화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불교 전통 부적에 담긴 의미에 관한 내용에 이르러, 옛사람들의 염원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염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부적을 지니면 정토에 태어나거나 성불을 하게 되며, 또는 만겁에 걸친 생사를 받지 않거나 모든 죄를 능히 멸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소망을 성취하거나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기원하는 부적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소망은 그 결은 같은 법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최근 원적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가 썼다. 그 추천사가 이 책의 주제와 중요성을 대변하기에 일부를 게재한다.

우리의 오래된 부적 문화가 식민시대를 거치며 폄하되고,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근대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국내외에서 우리의 미묘한 부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부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제대로 알고, 이 부적 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간다면 한류(韓流)의 흐름에 아름다운 꽃잎을 더하게 될 것이다.

– 현봉 대종사 '출판에 부쳐' 중에서

어른을 위한 담백구수한 '불교 동시'



부처님의 작은 선물
최승호 지음
준한 스님 감수
담앤북스/ 1만6800원

〈부처님의 작은 선물〉은 현대 시문학의 거장 최승호 시인의 '어른들을 위한 동시집'이다. 동시의 새 지평을 연 〈말놀이 동시집〉 시리즈와 방시혁이 작곡한 〈말놀이 동요집〉, 카툰 동시집 〈치타는 짜장면을 배달한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름다운 동시를 꾸준히 창작해 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불교를 소재로 대자연 속 천진스러운 생명체들을 노래한 동시 60편을 선보였다.

시인은 "마음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절은 부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름다운 공간"이라며 "그곳에서 스님들의 생활 그리고 사찰을 둘러싼 대자연 속 천진스러운 생명체들을 떠올리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불교 동시를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시집에는 시인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직접 그린 삽화 60점도 실려 있다. 파란색 털실 뭉치 같은 '청삽살개'는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들고, '연등행렬' 속 코끼리는 알록달록한 연등을 떠올리게 한다. 개구쟁이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림은 한 편의 선화(禪畵)를 보는 듯 담박(淡泊)하다.

시집의 또 다른 특징은 한글 시와 영문 번역을 함께 실어 영어를 배우는 어린이나 한글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영문 번역은 JustBe 홍대선원의 준한 스님이 직접 감수했다. 스님의 제안으로 '섬돌' '소소리바람' 같은 단어는 발음 그대로 표기한 후 뜻풀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번역해 말놀이의 재미를 살리면서도 우리 정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잡지 톺아보기

가깝고도 먼 '일본불교' 만나다

월간 〈불교문화〉 6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6월호(통권 제286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6월호 특집은 '일본불교'로 한때 국교의 위치까지 올랐던 일본불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스에키 후미히코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명예교수는 '일본불교와 보살'을 주제로 일본불교는 〈법화경〉과 〈무량수경〉 등 초기 대승불교 바탕으로 실천적인 불교 전개를 했다고 전한다. 박규태 한양대 명예교수는 '일본불교의 특징과 역사'에서 나라 시대부터 메이지유신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넘게 지속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현상은 일본불교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용월사불교문화연구소장 법우 스님은 '일본의 정토불교'에서 일본의 불교 지형에서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토불교임을 말하며 정토종(淨土宗), 정토진종(淨土眞宗), 시종(時宗)으로 대표되는 정토계 종단들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현대 일본 조동종'을,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조교수는 '일본불교 니치렌계의 역사와 활약'을, 바바 히사유키 일본 불교대학 교수는 '일본불교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통해 일본불교 종파와 현황 등을 살핀다.

이 밖에도 △치유의 숲, 사찰림을 가다-화계사와 삼각산 숲 △문화재의 시선으로 보는 절집 이야기-동해 삼화사 △10분으로 배우는 불교-계율과 수행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모름을 받아들일 때 두렵지 않다 △6월 화요 열린 강좌-'붓다'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친숙하고도 무서운 '저승사자'

월간 〈불광〉 6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불교지 〈불광〉 6월호(통권 제596호)가 발간됐다.

〈불광〉6월호의 주제는 '저승사자'다. 저승사자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무언가 두려운 존재다.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삿갓을 머리에 쓴 저승사자는 1980년대 초 방영된 〈전설의 고향〉에 보여진 모습이다. 요즘은 드라마 등을 통해 보이듯이 무서운 얼굴보다는 주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민간 신앙에서 유명한 저승사자는 바리데기 공주와 강림차사다.

민간 신앙과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와 불교 의식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말을 타고 내려온다는 점이다. 경전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걸치고, 검은 말을 타고 내려온다. 이번 호에서는 염라대왕과 사천왕의 대리인이었던 저승사자가 시왕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과정과 저승사자의 명칭과 종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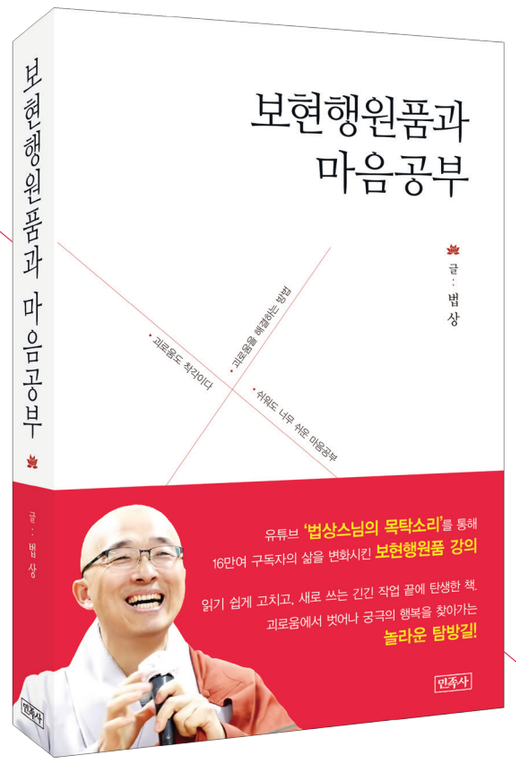
전통 사찰의 명부전에 가면 저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있는 시왕의 맨 끝에 두 분의 저승사자가 도끼와 종이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다. 또한 각각의 시왕 뒤로 걸린 시왕탱화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떠나는 듯한 사자, 이승에서 망자를 데리고 저승에 도착한 사자 등 저승사자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광〉6월호에서는 염라대왕과 사천왕의 대리인이었던 저승사자가 시왕례의 정착과 더불어 변해가는 모습을 살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자가 화려한 색으로 변해가는 과정, 수륙재 같은 망자를 위한 추모의례에서 저승사자를 맞이하고 보내는 절차 등을 다뤘다.

신중일 기자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
• 불변증을 통한 마음공부 •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